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33호

발행일 : 2019. 1.13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

100일간 성전밧기를 통해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잘 해결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



<이달의 간증>

-이연주 청년-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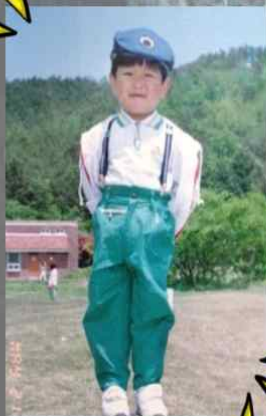
이제 막 밀알 청년회가 된 이연주입니다. 전수현 집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권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간증? 그냥 쓰면 되지 뭐.’ 이러면서 쉽게쉽게 써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막상 컴퓨터에 앞에 앉으니 어떻게 써야할지, 무슨 내용을 써야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간증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선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렸고, 간증에 대해 쉽게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막 끝낸 학생으로서 제가 겪었던 입시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핑계로, 고3때는 고1,2학년 때 학생회에서 그나마 하고 있던 직책인 구역장까지 거절하면서 점점 신앙인으로써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2부 순서마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수련회, 율동대회 등을 준비하는 학생회를 보면서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 시간동안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고, 제 연약한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거야. 입시만 끝나면 꼭 참여 할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며 회개하면 괜찮을 거라는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서 쓰는 기간이 되자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스쳐지나가는 그동안 지었던 죄들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이후로 저는 성전 밝기를 결심했습니다.

11시 반에 학교야간자율학습이 끝난 후 성전 밝기를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더 지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서 쓰는 것, 담임선생님과의 갈등, 대학합격 등을 놓고 100일간 성전 밝기를 통해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잘 해결 해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원서 넣은 학교 중 가장 먼저 발표 난 학교가 한국외대인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면접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답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올 때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걱정했지만, 합격한 덕분에 일찍 마음 놓고 다른 대학들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다른 대학들도 합격할거 같은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작아졌습니다. 제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은 다른 대학들을 줄줄이 떨어뜨리셨고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려 회개하였습니다. 고1때부터 가고 싶었던 학교인 경희대 예비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합격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 성탄축하제를 준비하는 내내 전화가 울지 안 울지, 언제 울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최선을 다해 울동을 마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합격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행복하게 학생회 찬양 연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대학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에 가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찾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성도 알아보기

-민이삭 권찰-

1. 2019년 라이프지 첫 호에 성도 알아보기

성도님으로 선정 되셨어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 스스로 제가 선정되어서 놀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해보니 2019년 첫 호 인 거 있죠.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선정 해 주셔서 감개무량할 따름이고, 최근 일 중 하울이 태어난 것 다음으로 제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2. 2018년 감사한 일이 참 많으셨지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시도록 감사 멘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 감사드립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히 받은 은혜, 날마다 제 심령과 삶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송축하는 자 되겠습니다.

3.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모태신앙 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4. 어린시절 권찰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추측해 보기는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담임선생님 의견란엔 '심성 이고우며 공부도 잘하고 학우들과 잘 어울리며 활발하나 수업시간에 주의 집중하지 않고 떠드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적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수업시간에 까불지 말고 진득하니 있어야 된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당진보다 훨씬 시골인 '리' 단위인 바닷가 '안흥'이라는 곳인데 지역 특성상 그랬는지 어렸을 때 비석치기, 땅따먹기,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널뛰기, 팽이 치기 등 지금 세대 아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놀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놀치면 친구들과하고 한 시간 족히 넘는 등하교 거리도 줄기차게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5. 권찰님께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신앙입니다.

6. 김소현 권찰님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궁금해요. 그리고 김 권찰님의 어떤 모습이 결혼까지 이르게 하였는지 매우 궁금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2년 01월 03일 12시쯤 대전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카톡으로만 연락 주고받다가 처음 통화하는거라 그런지 통화연결음 가는 내내 가슴이 쿵쿵 뛰는데.. 과장 조금 보태면 그전까지 살면서 제일 크게 심장이 뛰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연결되고 "여보세요"하며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데 떨려서 말도 간신히 했습니다. 몇 분 뒤 저 멀리서 빨간 비니(모자)에 후드 입고 그 위에 노스페이스 패딩 조끼에 청바지를 입고 어그를 신고 오는 모습의 그녀를 봤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도 첫 만남인 이때를 생각하면 설레면서 웃음이 나오네요~ 오죽하면 이렇게 세세히 기억나겠습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김소현 권찰을 보는데 너무 예뻐서 일단 맘에 들었습니다.(저한테 늘 신앙은 당연한 것이였기에 논외였고, 첫번째가 외모였거든요..) 첫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주문한 커피와 차를 마시려는데 김소현 권찰이 본인 두 손을 꼭 잡고 두 눈 딱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래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차 마시는데 이렇게까지? 눈만 지그시 감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 모습에 제대로 반해버렸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이라기 보단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애 1년 동안은 정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만큼 사랑에 눈이 먼 나날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면서도 꼭 결혼하자고 매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매일을 구름에 떠있는 듯한 그 기분!! 연애 시절 처음 교회에 와서 김소현 권찰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딱히 어떤 한 모습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고 그냥 모든 면이 좋았고 사랑했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7. 라이프지 지난 호에 아내 되시는 김소현 권찰님께서 민이삭 권찰님이 닭요리는 다 좋아한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내님께서 해주시는 닭요리가 그렇게 맛있으셨어요? ^^

네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요리도 잘합니다. 동 나이대에 웬만한 여자보다 요리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모로 복 받은 남편입니다^^

8. 아내분 자랑 5가지 나열해주세요. 그리고 찾기 어려우시겠지만 굳이 찾아보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장점

1.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 2. 변함없이 한결같은 미모
3. 선하고 깨끗한 마음과 깊은 배려심 4. 현모양처 5. 뛰어난 실천력
단점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함.(모유수유중이어서 그런 것 아님. 연예때부터....^^)

9. 부부란 ()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다.

10. 권찰님의 문학력을 총 동원하여 모든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감탄하시도록 김 소 현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김 :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이 식탁을 온기로 채우 듯

소 : 소복히 쌓인 눈이 온 세상을 새 하얗게 뒤 덮듯

현 : 현~ 그대 덕분에 내 마음은 온통 사랑으로 물들었소.

11.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떤 가장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모든 부분 특히,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고,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온전히 등백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귀염둥이 민장남, 민차남에게 가장 친밀하고 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2. 요즘 권찰님은 무슨 기도 하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 아내인 김소현 권찰의 산후 회복과 이룸, 하울 두 아들들의 영육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장인 제가 더욱 신앙 안에 올바르게 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13. 권찰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인자하게 맞아주시는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이십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에 자책하며 회개할 때마다 위로와 힘주시며, 부르짖으며 찾을수록 더욱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 이십니다.

14. 인생의 고난은 필수 코스라서 누구도 피해갈수 없지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우리들은 더 그러합니다. 권찰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들려주세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은 이룸이를 임신하기 전에 한번의 화학적 유산을 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산모였던 김소현 권찰예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저에게도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예전에 비하면 신앙이 조금이나마 성숙했었기에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들으며 배웠기에 힘들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룸이라는 축복의 결실을 맺기 위한 연단의 한 과정이었음을 몸소 체험하였고, 한층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인격적으로 만났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5. 권찰님은 두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받으셨네요. 힘든 만큼 축복도 두 배 일거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아무래도 몸이 피곤한 것이 어려움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체력관리를 더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 가을 심방말씀 받으셨지요? 부부가 함께 그 말씀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셨을까요?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작년과 올해 두 번 연속으로 심방 때 제가 회사출근 때문에 함께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저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고 새해에는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차를 써서라도 가족 모두 다 같이 심방 말씀을 받을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이룸이와 김소현 권찰과 함께 매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삶속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정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 울동 헌신예배때 여호수아 팀에서 활약하시는 것 감명 깊게 보았어요. 하나님은 권찰님께 무슨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자기 자랑 부탁드립니다. 음..가장 어려운 질문 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내세울만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으로 굳이 꼽자면 운동신경과 찬양인 것 같습니다.

18. 다윗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서 당대뿐 아니라 아들대 까지도 큰 복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권찰님의 무엇으로 두 자녀 이룸이와 하율이를 크게 복 받게 하시겠어요?

이번 가을 대심방때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집에 해주신 말씀처럼 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힘들지만 새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여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19. 가장 최근에 권찰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장 13절~14절)

20. 심계명 중 권찰님께 가장 어려운 말씀은 어떤 항목이예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불현듯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좋아하며 원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모습이 생겨나 늘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1. 19년을 시작하며 성도님께 멋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참신하게~~~

2 :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다시한번 신앙의 성장을 위해 도전해요
우리 모두!!

0 : 0!!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과거는 잊고 모두
함께 정진해 볼까요??

1 : 일희일비 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시다

9 : 구구절절 말도 잘 하는 민이삭 권찰 올림.(꾸벅)

사랑과 기쁨을 나누세요!



前학생회 회장

김은희청년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우리 교회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참 예쁘게 자란 학생과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등직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어여쁘게 학생회를 맡아 팔방미인처럼 활동한 김은희 청년을 칭찬합니다. 좀처럼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주변 성도님들에게 그닥 썩썩하게 대하는 것 같지도 않았던 은희입니다. 어찌보면 좀 내성적이라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힘 있게 말하지 않았던 친구지요.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앞선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회 회장을 맡은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 한 걸로 보입니다. 참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보이던 은희가 헌신예배 인도도 잘하고 이모저모로 바쁘게 학생회 살림을 부지런하게 잘 살피며 고심하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를 대표해서 다방면에서 바쁜 한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네요. 직책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은희를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학도 가고 청년이 되어 더욱 바쁜 생활로 걸음을 옮기겠지만 2018년에 은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 결심과 실천에 대한 자아성찰 *

조은혜 성도 (2번) -

1. 100% 2. 70% 3. 50% 4. 25%

* 이달의 결심과 실천 *

이영주 집사

일주일 동안 세 번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고3 되는 장미와 이제 군에 곧 입대하게 되는 승혁이 그리고 2019년 되면 더 바빠질 송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 하겠습니다.

감사릴레이

정효선 집사

보잘 것 없는 제가 감히 이렇게 감사릴레이에 주자로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다섯 개 이상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잠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할수록 감사의 열매가 풍성함을 알게 되었지요. 앞으로도 감사와 순종함으로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자 : 금영미 집사

축 성탄

2018.12.24



소중하고 복된 자리에
큰 은혜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자리를 빛내주신 DJFGCC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2018 숨구영신예배

한 해의 마무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 일을 기대하며

축복받는 2019년 되시길 소망합니다

2018 교회학교 졸업예배

2018.12.30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201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유초등부 소식입니다. 시작과 끝이 만나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해야 새해에 산뜻한 기분으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깔끔한 마무리와 산뜻한 새 출발 하셨으리라 생각하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12월 3부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12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하다보니 12월의 3부 순서는 성탄 행사준비 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첫째 주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반짝 반짝 빛이 나는 트리를 꾸미기 위해 트리에 걸어둘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똑딱똑딱 만들어 내는 모습이 참 대견 하였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성탄절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 율동, 연극 등 유초등부 친구들의 솜씨는 다 아시지요?? 찬양 가사, 율동, 연극 대사를 열심히 외우고 익혀서 성탄축하제에서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주는 11월~12월 아이들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축하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구두구^^ 우리 유초등부를 떠나고 새로이 들어오는 졸업예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6학년 아이들은 졸업으로 학생부로 올라가고 유치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새로이 올라와 적응하며 또 다른 시작을 해 나아갈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그날까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성경숨은그림찾기



엘리사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빌
되 조금 빌지 말고' ... 여인이 물려가서 ... 아들은 그릇을 가져
오고 여인은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그릇이 더 없다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열하 4장 2-7절)

(숨은그림 : 팬이, 칼, 진주반지, 아이스크림, 새)

* 나는 축복받은 사람 - essay.21 -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투신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투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더 가치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투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투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투셨습니다.

*구한것 하나도 투시지 않았지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 투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장애인 센터에 걸려있는
닥터 미상의 시-



성경 가로 세로 퍼즐 <1회>

(5)		(4)				(7)			
		(6)			(2)	(4)		(6)	
			(1)			(9)			
	(3)								(9)
					(3)				
	(2)								
					(7)		(8)		
					(8)				

가로 문제

- (1)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 말이 적용된 것이다. (마16:16)
- (2) 골로새의 교인으로 바울이 직분에 대해 권면 하였다. (골4:17)
- (3) 소선지 중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나귀 타고 가는 것을 예언했다. (슥9:9)
- (4) 레위의 둘째 아들 (출6:16)
- (5) 함의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 (창9:18)
- (6) 레아가 낳은 야곱의 셋째아들 (창29:34)
- (7)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 (단8:16)
- (8) 여기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으며 제자들을 부른 곳 (막7:31)
- (9) 신약 첫 번째 성경

세로 문제

- (1) 고린도 회당을 맡은 사람으로 바울의 전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행18:8)
- (2) 캄비세스의 아들로 바세 제국의 초대 왕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 (대하36:22)
- (3)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 베냐민 지파 이 지역으로 이동한 곳 (삼상13:15)
- (4) 베드로의 형제로 12 사도로 일생을 봉사한 사람이다. (마10:2)
- (5) 예수님의 열두제자이나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후에 자살했다. (마27:5)
- (6) 이삭이 40세에 얻은 아내 (창25:20)
- (7) 사울왕의 작은 딸 (삼상14:49)
- (8) 사사 시대 말기의 대제사장 (삼상1:9)
- (9)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 (요20:24)

아름다운 이야기

영국의 모 방송국에서 수년 전에 청취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걸고 현상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게 무엇인가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 장미 한 송이, 호숫가에 핀 수선화, 오래된 바위 위에 낀 이끼, 잘 닦여진 유리구슬, 안개 낀 템즈강, 등등 여러 가지가 응모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의 숙고 뒤에 1등으로 당선된 응답은 '우리 엄마의 눈'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에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 마디 하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쪽 눈만이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 가냐며 투정을 부렸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아들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풀고 앞을 보는 순간 아들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뒤틀린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네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잇지 못했습니다.

유머

일찍 올 수 있었는데~

30년 동안 건강하게 지낸 90대의 노부부가 같은 날 죽게 돼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에서 그들은 그들을 안내할 천사를 통해 자신들이 살 집에 가게 되었다. 천국의 집은 지상의 어느 집보다도 화려하고 이상적이었다. 놀란 할머니는 천사에게 물었다.

"저희가 이곳에 살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천사는 말했다 "전부 무료지요. 이곳은 천국이니깐요"

그 후 그들은 집 뒤의 호화스럽고 인상적인 정원을 거닐고 마을로 가게 되었다. 마을 또한 이 세상 어떤 물건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들뿐이었다. 또다시 할머니는 천사에게 질문하였다

"이런 물건들을 가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하나요?"

"전혀요, 이곳은 천국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사 시간이 되자 난생 처음 보는 산해진미를 먹게 되었다. 음식들 역시 무료였다 그런 할머니는 걱정하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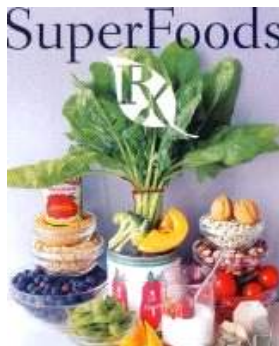
"저런, 저희는 저지방과 콜레스트롤이 많은 건 먹으면 안되는데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천국의 음식은 뭘 먹든 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그때까지 묵묵히 있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역정을 내며 말했다.

"당신이 그 놈의 건강 식품만 먹자고 안했어도 30년은 일찍 왔겠다!"



행복을 만드는 비결 5

대체로 행복한 사람들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피하며, 친절하게 행동하며, 기쁨을 느끼는 일에 몰두한다. '허프포스트'가 매일을 행복한 날로 만들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했다.

1. 질투심을 버려라

'이웃 효과'라는 것이 있다. 친구나 이웃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생활을 하거나 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남이 가진 것이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다보면 장기적인 목표와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여기에 남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분개하거나 신뢰를 갖지 않는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2. 잠을 충분히 자라

저녁시간에 더 바쁠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잠을 미룰 수가 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직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집에서는 초조감이 증가할 수 있다. 기분이 두드러지게 변화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졸리는 것은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 생기는 증상이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할 정도로 수면을 취해야 한다.

3. 움직여라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며 질병에 덜 걸린다.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정신이 더 초롱초롱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1주일 내내 체육관으로 달려갈 필요는 없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자신의 스케줄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면 된다.

4.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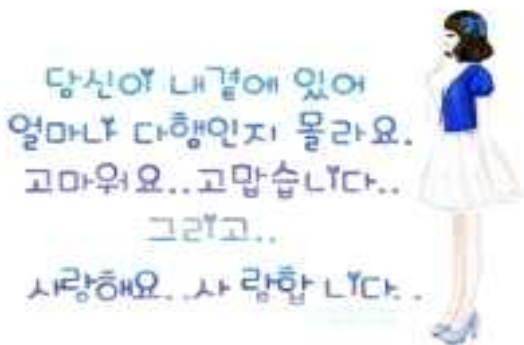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잠시라도 당신의 인생에서 감사할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친구나 연인과의 특별한 순간에 기쁨을 발견하고 일상에서의 작은 성공도 축하하라. 자기 개선을 위한 작은 전진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인생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애쓴다면 일지를 쓰는 게 좋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과 기쁨을 느낀 일들을 기록한 일지를 힘겨운 시기에 읽어보면 기뻐던 순간이 떠오르며 위로를 받고 기쁜 마음이 충만해진다.

5.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매일 남을 위해 좋은 일한 가지를 하도록 노력하라. 관대한 행동은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자신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직장 동료의 협조에 감사를 하거나 이웃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 등을 해보자.



시사용어 Briefing

녹인배리어 Knock-in barrier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뜻한다. 투자기간 동안 기초 자산가격이 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고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만기 지수하락률만큼 ELS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50%의 녹인배리어가 설정된 원금비보장형 ELS 경우 둘 중 하나의 주가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 개념인 녹아웃배리어는(Knock-out barrier)수익률이 확정되어 조기 상환이 가능해지는 주가 수준을 뜻한다.

메기 효과 Catfish effect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한다. 정어리가 가득 담긴 수족관에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 정어리들이 잡아먹힐 것 같지만 오히려 생존을 위해 꾸준히 움직여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이와 같이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면 미물조차도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일반적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이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이 메기 효과(Catfish effect)이다.

스몸비 Smombie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걷기에 사고 위험도가 높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약 10%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그중 매년 6명이 사망한다는 분석이다. WSJ가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PSC)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사고가 나 응급실을 찾은 보행자가 124% 늘었다.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

모디슈머 Modisumer

Modify(수정하다)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제조업체가 제공한 조리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재 창조한 방법으로 제품을 즐기는 소비자를 말한다. 크리슈머(Creashumer)의 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크리슈머는 Creative(창조적인)와 Consumer를 조합한 용어로 단순히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으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아몽법 Hamon law

제조업체가 제품의 사용 주기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프랑스의 법이다. 이 법의 명칭은 2015년 사회당 대선 후보를 지낸 브누아 아몽(Benoit Hamon) 전 교육부 장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 아몽법은 계획적 진부화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란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으르 단축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몽법과 같은 취지를 담은 ‘고의 성능 저하 방지법’이 2018년 3월 발의된 상태이다.

화재가 일어났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통신사의 일이었다. 지하 일층 지상 5층 건물이었다. 화재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장비에서 일어났고 지하에 매설 되어 있기에 접근마저 쉽지 않아 화재 진압에 애를 먹은 사건이라고 한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땅을 파고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재가 발생하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 바로 통신 장애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는 하지만 주요 통신 장비 한 곳에 불이 나고 나니 일대의 통신이 마비 상태가 발생하여 순간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는지 상상해 보게 되었다. 우선은 전화가 되지 않고 검색도 문제였고 인터넷 결제 등 많은 부분에서 무수히 많은 불편사항들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3사 대표를 불러 회의를 진행 했고 이런 재해에 대비해 대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불이 난 통신사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구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 했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통신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일들을 통해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바른길로 가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통신에 장애가 생긴 자는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께 멀어지며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통신 장애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다.



<성경 인물 소개>

요게벳(Jochebed)

뜻 : 여호와와 영광이다

레위의 딸이요 모세의 어머니이다.

애굽 왕녀에게 양자로 간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 모세를 신앙으로 길러내며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깨워 위대한 지도자의 밑거름이 되었다([출2:1-10](#), [6:20](#), [민20:59](#), [히11:23](#)).

* 성경상에 나타난 3대 현모 곧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무엘의 모친 한나와 같이 그 이름이 빛나있다.

요게벳은 "여호와와 영광"이라는 뜻이다. 레위의 딸로 아르람의 아내였으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어머니였다. 아르람과 요게벳은 신앙이 독실한 부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가족이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겨 기를 수 있었으며,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히11:23](#)). 요게벳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대로 믿음의 위인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갈상자에 어린 모세를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나일강에 그 상자를 띄운 것도 믿음의 행위였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유모를 구할 때에 미리암을 통해 요게벳이 소개되고, 요게벳은 오히려 인건비를 받아가며 모세를 양육했고, 그 후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는데까지 요게벳은 큰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양육하기 위해 섭리하신 선택이 지배적이었지만, 모세가 젖을 빨며 요게벳의 품에서 유아시절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또 모세와 요게벳 사이에는 궁궐의 40년 기간에도 은밀한 교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강한 선민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 수 있다.

▷ 교훈과 적용 ◁

첫째, 요게벳과 아르람은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애굽에 있는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둘째,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 베푸신 큰 섭리와 주권을 확인하자

◎ 이달의 교회소식

1. 임명식 / 6일 오전예배 - 제직, 직분 등
2. 공동회의 / 6일 오전예배 후 - 재정예결산
3. 제직헌신예배 / 6일 저녁예배
4. 특새 / 7일~11일
5. 13차 단기선교 / 14일~18일, 대만
6. 헌아예식 / 20일 오전예배
7. 구역헌신예배 / 20일 저녁예배
8. 구역단합대회 / 21일 오후7시 현대옥
9. 학생회헌신예배 / 27일 저녁예배
10. 학생청년연합동계수련회 / 28일~30일

● 공지사항

1. 생활실천표어 : 네 믿음으로 생각하라
2. 신앙서적 / 가정행복지수 높이는 66가지 지혜 ‘이지현’ 저

◎ 이달의 교우소식

1. 군입대 / 백승혁청년, 7일 해군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